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제사업에서 현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 원료를 보장하는 기본생산부문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전반적 경제발전에서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전력과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전망적수요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고 기계공업과 정보산업을 발전시켜 설비의 국산화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높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건설을 올해중으로 완공하고 다음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현속적으로 진입하여 또 하나의 현대적인 구역과 거리를 일떠세우며 새로운 건축형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말야 추진하고있는 검단지구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결속하고 도, 시, 군들에서도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인민들이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명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사서 현시기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혁명과업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을 제공해주자면 농업발전에서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농업발전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특히 재해성이 상가후에 견디어내면서도 수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성, 개량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자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농작물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 보리과종면적을 2배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명명하게 개

선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축산부문에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염소와 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근중적운동으로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며 사료단위를 극력 낮추고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특히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젓생산량을 현재의 3배이상으로 늘이며 젓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젓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과일과 남새생산을 집약화하고 대규모 남새은실농장들을 많이 건설하며 기름작물, 당작물을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추켜세워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었다.

현시기 인민생활보장에서 나서는 급선무는 경공업과업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6개월이상 선형시켜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산업발전에서 힘을 넣을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었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와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집중적인 어로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통출입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명명수준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부흥과 발전, 미래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시었다.

공화국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서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국공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우리 나라를 선진교육국으로 전변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교육중시, 인재수정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열어나가는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우리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전체 인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보건제도를 마련하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높을수준에서 축성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인민들과 후대들의 운명, 정신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화국정부는 마땅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체육사업을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최대로 증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었다.

력을 강화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공화국무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건설목표들을 철저히 실현으로 관철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었다.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행동으로 로골적으로 벌이고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벌어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논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를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언명하시었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

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랭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하며 조선반도주변의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역제할 우리의 부동한 립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역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괴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색되어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판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선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 국제정치정세를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이 다사다변한 외부적환경에 더욱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하시었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

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서 불과하다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력량관계를 호상련관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대외사업부문에서 더욱 불안정해지고있는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감에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련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을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하늘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간직한 제일 귀중한것인 것이다. 이 믿음에 도달하는것은 이 나라 수천만 공민들앞에 지닌 우리들모두의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인민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최대의 노력으로써 자기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표명하시고 이면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높이 위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시정연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전인민적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장으로 된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 14기 제 5 차 회의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회의의 1일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들, 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회의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일회의에서는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는 법초안들과 재자원화법집행

검열감독정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고길선대의원이 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을 본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과 수정보충안을 연구 및 협의회에서 토의한 다음 토론을 진행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회의의 2일회의가 9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발전단계로 상승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하고 명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적 과업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진지하게 청취하였으며 무한한 격정과 흥분에 넘쳐 열렬한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2일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대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는 다섯째 의정을 토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

본사기자